



# 이제는 과학문화센터

글\_ 조속경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skcho@ksf.or.kr

영국 런던의 남쪽에는 유명한 하이드 파크가 있다. 공원 남쪽으로는 사우스 켄싱턴 지역이 펼쳐지는데, 이곳에는 전시회 거리가 있다. 19세기에 등장한 이 거리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 개의 박물관과 이공계 대학이 있는데, 런던 과학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그리고 임피리얼 칼리지가 그것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이 거리에는 일년 내내 유럽 및 영국 전역에서 찾아온 수백만 명의 관람객으로 북적거린다. 1851년 영국의 위상을 맘껏 드러내던 만국박람회의 전시품에서 시작된 런던 과학박물관은 전통적인 박물관 개념과 1960년대의 체험형 과학관 개념을 조화롭게 융합한 과학박물관으로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첨단과학과 공학 및 의학을 만날 수 있다. 외관이 화려한 자연사 박물관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분야 및 인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에는 과학기술이 산업 및 예술에 응용된 역사와 현재가 풍부하게 전시되고 있다.

전시회 거리에는 그야말로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과학박물관 뒤편에 위치한 임피리얼 칼리지는 영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으로, 이곳에서 진행되는 최첨단 과학연구는 곧바로 과학박물관의 큐레이터를 통해 전시물로 태어난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세계적 명성은 바로 현장의 과학과 일반 대중을 연결하는 최고 전문성과 그 신속함에 있다.

일본의 고베 지역에서 빠른 기차를 타고 한 시간 가량 동쪽으로 가면 개관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비와코 박물관(Biwa Lake Museum)이 있다. '인간과 호수'라는

부제가 붙은 이곳은 호수를 주제로 한 수중생태, 자연 및 사회 지리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시하는데, 특이하게도 그 지역민의 생활사가 산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30여 명의 자연과학 분야 박사와 역사 및 사회학 분야의 큐레이터들이 지역의 대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박물관의 공간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일본 전역에서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드는 이곳은 벌써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성은 박물관이 개관하기 거의 10년 전부터 임용된 큐레이터들과 지역의 과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전시개념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박물관을 설계·건설한 결과이다. 비와코 박물관은 기존의 과학박물관이나 과학관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 ‘과학과 인간, 그리고 사회 공존’

과학 박물관이 전시물의 수집과 보관 및 관련 연구를 강조한다면, 미국 익스플로라토리엄으로 대변되는 과학관은 과학의 기본 원리를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반면 비와코 박물관에는 과학관처럼 과학만 있지도 않고 과학 박물관처럼 역사만 있지도 않다. 이곳에는 과학과 인간 그리고 사회가, 특히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과학을 문화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과 레저가 동시에 가능한 과학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영국 런던에는 과학관으로 특화된 시설이 70개나 있다. 일본에는 각 현마다 크고 작은 과학관이 산재해 있고 약 200개의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는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과천 국립과학관을 포함한다면 단지 3개의 국립과학관이 있을 뿐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대전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과학원이 유일한 과학문화 시설이다. 하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과학관이나 교육과학원에서 최첨단의 과학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우선 과학관에 자연과학

을 비롯하여 과학관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과학관과 현장에 있는 과학자간의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은 TV나 신문을 통해 접한 과학과 과학관에서의 과학간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비단 과학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점점 더 자신들이 수행하는 연구가 어떤 것인지 대중에게 알릴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 과학관은 과학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과학자들이 이해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며, 과학을 전공할 후배를 키워내는 곳이자 과학에 대한 폭넓은 후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여가에 대한 개념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휴가를 떠나는 미국인 70% 이상이 단순히 놀고 즐기는 휴가가 아니라 교육적이면서도 문화적·생태적 다양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휴가를 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각 시도마다 지방정부 주도의 과학문화센터를 만들자. 동일한 전시물에 동일한 주제를 다룬 과학관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징을 갖추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과학문화센터를 만들자. 지역의 대학과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연구가 지역의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동시에 지역민의 삶이 어우러져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의 교육과 레저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과학문화센터를, 과학자와 대중이 전시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채널로서의 과학문화센터를 말이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러한 과학문화센터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일을 충분히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 하락은 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㉔